

유무선 디지털콘텐츠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난다

글_신승철 기자·사진_이혜성 기자

지난해 한국디지털콘텐츠협회, 한국음성콘텐츠산업협회, 한국콘텐츠신디케이션협회,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솔루션협회 등 5개 단위협회가 모여 지난해 제출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가 올해의 주력사업을 선정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IBA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 사업자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각오 아래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 정착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정보 제공의 중심점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으며, 최근에는 25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전 임정수 정보통신부 서기관을 상근부장으로 영입하며 사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법복제가 산업화 걸림돌 ... 계몽 활동에 주력

임정수 신임 KIBA 상근부장은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디지털콘텐츠의 산업화에 일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와 사업자들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비즈니스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IBA가 우선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은 콘텐츠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 근절. KIBA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국내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는 6조5,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콘텐츠의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이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IBA에 따르면 영상콘텐츠가 불법 복제로 입는 피해액이 연간 1,200억원에 이르렀다. 또 음악콘텐츠의 경우 지난 2000년 4,000억원대였던 오프라인 시장규모가 3년만에 1,80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것은 불법 MP3 파일 유통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민간 주도의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 사업을 통해 정품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으며, KIBA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추진해 불법복제에 관한 문제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간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근절 사업을 벌여오면서 단속과 같은 채찍보다는 홍보 및 교육이 효과적임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KIBA는 ‘불법복제방지지원팀’을 구성해 네티즌 대상의 홍보와 교육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임정수 상근부장은 “모니터링센터 운영 등을 통한 모니터링 활동과 기술적 보호장치를 통한 디

지탈콘텐츠 불법복제 방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의식수준 향상이 이루어져야 불법복제 방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BA는 홍보 활동을 위해 우선 네티즌의 접점이 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불법복제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포스터 및 표어 공모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사업을 위해 KIBA 사이트 내에 불법복제 관련 상담 페이지를 개설, 운영기로 했다. 또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사례 및 관련 법제도 홍보를 위해 백서 및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디지털콘텐츠 유통시 ‘DRM’ 과 같은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률전문가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관련법개정 건의 및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무선콘텐츠 자율심의 안착 · 신규사업 개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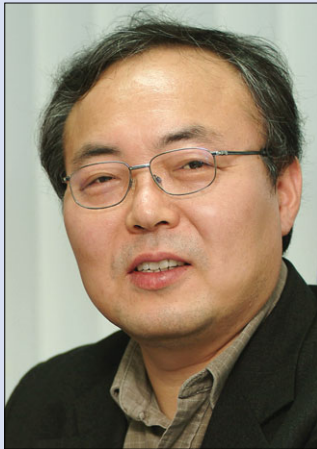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방지활동과 더불어 무선인터넷 자율규제 역시 KIBA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무선 인터넷콘텐츠 사전검증기관인 KIBA는 그간 소규모 무선 인터넷콘텐츠제공업체(CP)들과 함께 전제한 콘텐츠 자율심의 활동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으면서 올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올해부터는 NHN 등 대형 유선포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해온 CP들이 본격적으로 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무선

“한국 콘텐츠산업연구회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 사업자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각오 아래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 정착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정보 제공의 중심점이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비즈니스화에 일익 담당할 것”
임정수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임정수 전 정보통신부 서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에 따라 2년간의 임기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됐다.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란 공무원이 민간분야의 업무와 경력을 습득해 공직에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을 일정기간 휴직하고 민간분야에서 일하는 제도다. 신임 임정수 부회장은 지난 78년 조달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지난 96년부터 정통부에서 근무하면서 정보화지원과, 부가통신과, 통신경쟁정책과 등 주로 통신 관련 업무를 전담해왔다. 다음은 임 상근부회장의 일문일답.



포부를 밝혀달라.

● 진정한 IT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콘텐츠는 필수불가결한 산업군이다. ▲유통화의 저변 확대 ▲인터넷음악서비스 저작권분쟁 해결 ▲무선콘텐츠 자율심의 ▲온라인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의 산업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 하겠다.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 우선 관련업체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이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콘텐츠가 무료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하지만 불법복제 등과 관련해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은 네티즌을 자극해 모니터링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계도 홍보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선망 개방과 관련된 사업을 설명해달라.

● 무선망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유통화가 법제화되지 않으면 업계의 경영위기는 물론 성인물,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가 심각해진다. 우선 유통화 기반이 안정돼야 한다. 또 통신사업자의 포털사업자들과의 협력이 이뤄짐에 따라 SK텔레콤이 4월부터 포털에 망을 개방할 예정이어서 무선인터넷 자율규제 과제 등 협회의 여깨가 무거워질 것 같다.

인터넷 시장에서 초기에 자율심의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또 콘텐츠 사전심의 이후에 이동통신사와 wap(WAP) 게이트 이용 약관을 체결, 실제 서비스에 착수한 CP들도 늘어나고 있다.

KIBA 산하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건을 살펴보면 벨소리·캐릭터·다운로드 만화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누드, 야설, 모바일 미팅 등 성인용 콘텐츠 접수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심의위는 지난해 정한 심의 기준에 따라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서비스 불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포토·누드 콘텐츠는 현재까지 크게 문제시되는 내용이 적은 편이었으나 노골적인 성애 장면이 포함된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하기로 하는 등 심의의결 기준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신청 콘텐츠의 수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심의 신청업체에 사전에 공지하는 등 효율적인 심의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심의 결과 부적합 또는 보완 조치를 받은 콘텐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콘텐츠 접수 건수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월 1회 정규 심의 외에 월 1회 온라인 심의 개최 ▲온라인 커뮤니티 및 웹하드를 통한 콘텐츠 DB 공유(보안 대책 검토) ▲신청업체 접수 마감 시한 설정 등 다양한 장치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재까지 확정된 KIBA의 주요 사업으로는 저작권특별위원회, 해외진출 지원, 신규사업 개척 등이 있다.

저작권특별위원회는 1,300여개사에 달하는 회원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하고 저작권 분쟁 해결 및 컨설팅을 위해 구성됐다. 올해에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저작권법 및 제도의 괴리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한 산업환경 개선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며, 저작권협회 및 저작권집권협회와의 단체협상 등의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콘텐츠 해외마케팅포럼 공동운영 ▲각종 해외정보 제공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바일 테스트베드 위탁운영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벤처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DMB를 통해 DMB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다. ●